



1, 2부 예배 SERVICE

인도: 1부 이상재 목사(Rev. Sangjae Lee)
2부 박영관 목사(Rev. Young Gwan Park)

- 입례찬송 15장
Opening Hymn 하나님의 크신 사랑
Love divine, all loves excelling
-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 찬송 260장
Hymn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Glory to Jesus, Who died on the cross

3부 예배 SERVICE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4, 5부 예배 SERVICES

4부 영어예배

설교 Pastor John Yang
Sermon Philippians 4:2-9
Marks of Gospel Partnership:
Unity and Joy

5부 예배

설교 신기성 전도사
Sermon Pastor Kiseong Shin

예레미야 30:18-22
"내 백성-너희 하나님"

대표기도
Prayer

1부 윤관호 장로
2부 심혜원 권사
3부 김선옥 권사

찬양
Anthem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by 이동훈
"주의 축복이 있으리라" by Douglas E. Wagner

1부 찬양대
2,3부 찬양대

환영 인사 및 광고
Welcome & Announcement

- 영광송 & 봉헌
Doxology & Offering

만복의 근원 하나님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22:34-40
(신34:1-12, 시90:1-6, 13-17 살전2:1-8)

설교
Sermon

"가장 큰 계명은 사랑"
The Greatest Commandment: Love

김정호 목사
Rev. Chongho Kim

- 결단 찬송
Hymn of Response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What a Fellowship, What a Joy Divine

- 축도
Benediction

● 표에서는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as you are able at the mark

01. 안내 Welcome to FUMC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교회 안내와 교제의 시간이 새가족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아주세요.

* 생방송 예배: <https://www.fumc.net/web/live>

02. 정기 임원회 공지

행정 임원회가 오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임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10월 29일 오후 3시

*장소: 친교실

03. 믿음의 친구들 오리엔테이션

믿음의 친구들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있습니다. 참석 대상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10월 29일 오후 1시

*장소: 예배실

*강사: 김정호 담임목사

*참석대상: 속장, 부속장, QT리더 및 믿음의 친구들에 동참을 원하는 모든 교인

*문의: 목회실 및 신기성 전도사

04. 2023년 연합구역회 안내 2023 Charge Conference

연합구역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참석대상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11월 5일 오후 3시

*장소: 예배실

*연합교회: 후러싱 제일교회, 퀸즈 중앙 감리교회, 그레이넵 교회

*참석대상: 각 행정 위원장, 교구장, 속장, 총남여성교회장, 사역위원장과 팀장, 청년회장

05. 사역자 동정(사임)

박영관 목사는 '뉴욕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GMC소속)를 개척하여 11월 5일 부터 담임목사로 사역합니다.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 많은 기도 바랍니다.

06. 성도추모주일 안내

1) 11월 첫 주일(11월 5일)은 '성도추모주일'입니다.

*국화(Yellow) 화분을 가져오시거나 \$20을 교회에 현금 할 수 있습니다.

2) 약속의 땅 예배

*일시: 11월 4일(토) 오전 10시 교회 출발 / 예배: 오전 11시 30분

*예배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목회실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07. 11월 속장 부속장 모임 안내

11월 속장, 부속장 모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참석대상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11월 5일 주일 오후 12시 40분

*장소: 교육관 3층

08. 일광절약 시간 해제 Daily Night Saving Time Ends

다음 주일(11월 5일)부터 썬머타임제가 해제됩니다. 예배시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1월 5일 새벽 2시에 새벽 1시로 시간이 변경됩니다)

09. 전교인 탁구대회

11월 12일(주일) 오후 1시에 전교인 연령별 탁구대회를 친교실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목회실 혹은 김현정 집사(917-478-4868)

예배안내 Upcoming Worship Services

<수요예배 안내> Wednesday Service

삶의 지표가 되는 나침반(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00)

나침반과 같은 삶의 지표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00구절을 중심으로 한 주씩 말씀을 나누습니다. 혼돈의 세상, 어지러워 갈 길 못 찾는 이들에게 바른 지침이 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 11월 1일 : 민수기 20:15-23 "사람을 세우는 리더"

* 설교 : 김정호 목사

<새벽기도회 안내> Early Morning Service

큐티 교재 (기쁨의 언덕으로) 사용 / 새벽 6시 (월~토)

*생방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umc.net/web/live>

<설교 안내>

11/5	겨울이 오기 전에 (성도추모주일)	딤후 4:21 (수3:7-17; 시107:1-7,33-37; 마23:1-12)
11/12	깨어 있으라	마 25:1-13 (수24:1-3; 시78:1-7; 살전4:13-18)
11/19	하나님께 감사 (추수감사주일)	살전 5:16-18 (삿4:1-7; 시123편; 마25:14-30)
11/26	영별과 영생의 길	마 25:31-46 (겔34:11-16, 20-24; 시100편; 엡1:15-23)

<주일예배 대표기도 및 헌금 담당> Sunday Service prayer

날짜	1부 기도	2부 기도	3부 기도
10/29	윤관호 장로	심혜원 권사	김선옥 권사
11/5	김은숙 권사	이미재 권사	심데이빗 장로
11/12	하금숙 권사	김연희 권사	김현정 집사

헌금위원	연영숙 권사	이순애 권사	조성옥 권사
------	--------	--------	--------

모임안내 MEETINGS

생방송(Live)

<https://www.fumc.net/web/live/>
새벽예배와 수요예배, 주일예배를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으로 예배시간에 변동이 있습니다.

예배 SERVICES

주일 SUNDAY		
::1부	8:00 am	본당
::2부	9:30 am	본당
::3부	11:00 am	본당
::4부 (영어)	1:00 pm	소예배실
::5부	2:30 pm	소예배실

영어예배 ENGLISH SERVICES

::SUN 1 pm Small CTR

주중예배 WEEKLY SERVICES

::새벽 6am 본당/ 온라인
::수요일 8pm 본당/ 온라인

교육부 예배 및 모임

SUNDAY SCHOOL & YOUTH

주일 SUNDAY SCHOOL (ED BLDG)
영아부(만2세미만) 11 am
유아부(만3세미만) 11 am
유치부(만3-4세) 11 am
유초등(K-5) 11 am

청소년 YOUTH (Vision Center)
중등부(6-8) 11 am
고등부(9-12) 11 am

교회 부설 학교

FUMC ACADEMY

K-Culture School 9:30 am (Sat)

제일유아원 10 am (T-F)
(코로나 상황으로 잠시 휴교합니다.)

섬김의 사역자 학교

주 일 1pm / 1:30pm

목회상담실

문의: 718-939-8599

설교방송 TV/RADIO

주일 10 am
Voice of NY 라디오 코리아 FM87.7 (엡 FM87.7)

주일 9 am
CTS (CableV 1156, DIRECTV 2092)

월요일 7:10 pm
CGNTV (TWC 1296/1492, DTV 63.2)

토요일

CTS (CableV 1156, DIRECTV 2092)
-9 pm
cbsn (www.cbsnewyork.net)
-9 am / 7 pm



● 가나안 주차장
Roosevelt Ave. 선상
144가와 147가 사이

● 월드 주차장
38th Ave. 선상
Parsons Blvd.와 147가 사이

입에는 성경구절 가슴에는 미움 가득

담임목사 김정호

“입에 가득 성경구절을 물었지만 가슴에는 미움 가득해서 걸어 다니는 것 그만해라.”(Stop walking around with a mouth full of scriptures and a heart full of hate) 얼마 전 시카고 Otis Moss 목사 설교 가운데 나온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 하마스는 인질을 풀어주고 이스라엘은 가자 폭격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중동 평화를 바라는 설교를 했더니 목사가 복음만 설교하지 않고 정치 설교 한다고 불만의 소리를 내는 교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 담임목사가 연합감리교회 목사이고 후러싱제일교회가 연합감리교회인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기에 하나님 나라가 뭔지 무관심하고 예수님 말씀의 내용이 뭔지 무지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지 알다 모를 일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면 마주치게 되는 장면이 서울역 앞이나 명동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확성기에 소리지르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하는 사람들과 광화문에서 애국한다고 예비군 옷 입고 모여서 군가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불쾌감이 가득한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하고 나라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 딱한 노릇입니다. 그런가 하면 며칠 전에 제 폐복에 ‘전국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올라왔는데 ‘목사는 믿이 중헌디... ‘윤석열 퇴진’ 외치는 가난한 민중들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 교회에서만 설교하지 마시고 거리로 나오셔서 가난한 양들 굶어 살피소서. 저항의 선봉이 되어 주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자기 정치 소신이 현 정권 퇴진이면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니 광화문에서 하건 시청 앞에서 하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째야 한다 목사 설교가 저래야 한다 일방적 그리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 무례한 짓입니다. 웬지 정의로운 세상 만들겠다고 하지만 서울역 전도하는 사람들이나 광화문 애국한다는 사람들과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대화 불가능한 일방통행이 그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하고 자연스럽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흘러야 하는데 보채고 복잡하고 자기 의에 가득 차서 남에게 부담을 주는 일에 바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고 그 사랑으로 같이 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면서 세상을 바꾼다고 난리치고 교회가 이래야 저래야 한다 시끄러운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제국의 식민지가 된 유대민족의 주권을 회복하는 길이 성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생활 전반에 걸쳐 실천하도록 수백 개 만들어서 철저히 지키도록 했는데 뜻은 좋았지만, 이것이 사람이 숨막히게 만들고 죄의식을 빠뜨리는 무거운 종교적 짐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 로마제국은 정치와 경제 침략으로 유대민족을 짓눌렀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무거운 짐으로 짓누르니 사람들이 살기가 피곤하고 무척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성경 전체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큰 첫째 계명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가장 잘 믿는 것처럼 난리 치면서 사람 잡는 일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 자신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옛날 장일수 선생님이 만주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잘났다고 여기지 말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부터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에서 도둑질한 사람 찾아서 훔친 사람에게 돈 돌려주게 한 후 국밥을 사주면서 “미안하네. 자네 오늘 장사 망치게 해서” 하셨던 분입니다. 가톨릭 교인인데 교황이 한국 방문했을 때 교황을 만나도록 주선한 교황청의 초대를 정중히 거절하시면서 그 시간에 원주 시장 바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과 막걸리 한잔 하겠다 하셨습니다. 교황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하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이 분노하고 미워하는 일에 급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도 그토록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이 풍성했었는데 요즘은 야박하고 잔인한 말들이 난무합니다. 뉴욕 한인사회도 교계도 분열의 골이 깊다고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며칠 전 모임을 하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실을 친구 삼아!”(Making friends with actionable facts)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말들을 함부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실이 아니고 해도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것 집착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만 2천 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후러싱제일교회
THE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IN FLUSHING

38-24 149th Street, Flushing, NY 11354
Tel. 718-939-8599 :: Fax. 718-321-8805
www.fumc.net

입에 성경구절 많이 담고 아무리 종교적인 고상한 말 많이 한다 해도 속에는 미움과 불평불만 가득한 인생 살면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한 사람 한 번도 사랑하지 못한 인생 살았으면 주님 앞에 설 때 많이 부끄러운 것입니다.